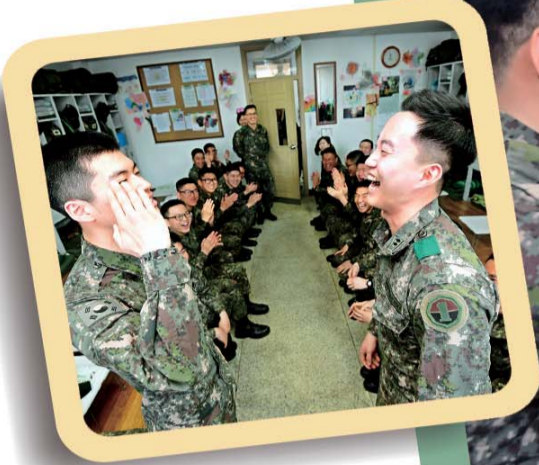


## ● 인성이 전투력이다

<9> 국방부 2017년 장병 집중인성교육 시범교육



교량중대 병사들이 '칭찬 나누기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



육군 1107공병단 130대대 교량중대 병사들이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배두리강사의 지도로 소통을 이끄는 공감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교량중대 병사들이 게임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푸는 과정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

흥미진진·재미만점 교육에 푹 빠진 병사들...

# 얼굴엔 환한 웃음 마음엔 따뜻한 인성



1107공병단 130대대, 서울여대산학협력단 인성교육 수강

국방부, 장병 집중인성교육 민간사업자에 위탁 시범교육  
외부 전문강사의 연극·게임 등 활동적 프로그램 큰 호응  
집중도 높이고 간부들은 교육훈련 매진 가능 '일석이조'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춰시다...”

지난 15일 육군1군사령부 1107공병단 130대대 다목적실은 교량중대 병사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전우들과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며 흥겹게 돌던 병사들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배두리(30) 강사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멈추고 잡았던 손을 놔다. 그리고 각자 뒤섞여 움직이다 아까 원을 그리며 돌 때 좌우에 있었던 전우와 다시 손을 잡았다. 비록 손은 잡았지만 서 있는 위치가 바뀐 만큼 팔은 마구 뒤얽힌 상황. 또다시 배 강사의 지시에 따라 손은 그대로 잡은 채 몸을 돌리고 다리를 올리며 뒤엎힌 손과 팔을 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웃음과 '아이고' 같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병사들은 끈기 있게 엮인 팔을 풀었다. 때론 손을 놔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면서도 전우의 훈수를 받아가며 애쓴 끝에 마침내 실타래처럼 엮인 팔을 풀고 깔끔한 원 형태로 돌아가자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집착하겠지만, 이날 교량중대 병사들이 참여한 게임은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게임은 국방부가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2017년 장병 집중인성교육'의 1권역(육군1야전군사령부)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 게임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얽히고설킨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을 간접 경험하게 한 것이다.

본격적인 올해 교육에 앞서 이날 시범교육

을 통해 보완할 점을 점검한 서울여대 측은 2박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내 옆의 전우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지금 여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화법에 관해 토론하는 '전우애의 시작은 공감', 병사들이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의 소재자로 만들고 소개하는 '마이 리빙 라이브러리' 등은 토론과 발표 위주의 프로그램.

부대 생활로 피로가 누적된 병사들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역동적인 활동과 게임도 다양하게 배치했다. 집단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3개를 시청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병사

들이 함께 쓴 후 이를 연극으로 실현해 보는 '시나리오를 잡아라'나 팀별로 10개 지점을 돌며 각 지점에서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체 미션 수행'이 대표적인 경우. 앞서 소개한 엮인 팔 풀기나 특정 전우에 대한 칭찬 10가지를 쓴 후 칭찬 내용으로 그 전우가 누구인지를 맞히는 '칭찬 나누기' 등은 교육 분위기가 느슨해질 때마다 적용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다.

지난해 부대 간부들이 진행하는 인성교육을 받아봤다는 황민호(24) 병장은 “아무래도 외부 전문강사분이 진행하는 교육이 훨씬 친근하고 분위기도 밝다”면서 “다양한 활동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강사의 인성교육이 반갑기는 부대 측

도 마찬가지. 강경식(중령·학군35기) 대대장은 “어머니·이모·누나 같은 분들이 강의 하시니 인성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올라가는 것 같다”면서 “간부들이 인성교육을 하려면 연구강의 등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민간 전문강사 덕분에 교육훈련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이날 시범교육을 지켜본 성군관대 김미량(교육공학박사)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참가자의 호응을 끌어내는 신선한 프로그램이 많은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고명희(경영학 박사) 기초교육원 교수는 “서울여대는 50년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름인성교육'을 실시해온 만큼 장병 인성집중교육에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면서 “서울여대가 부여하는 바름인성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2박3일간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여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한편 2017년 장병 집중인성교육을 위해 최근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국방부 정선전력정책과는 1107공병단 130대대(1권역·14~16일)를 비롯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3권역·13~15일), 육군 17사단(2권역·15~17일), 해병대 2사단(4권역·27~29일) 예하 대대에서 권역별 시범교육을 시행한 후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집중인성교육은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전체 육·해·공군, 해병대 병사의 55%에 달하는 23만여 명의 병사가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글=김기영/사진=조종원 기자

■ 편집=박재운 기자